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사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강국 건설설념원은 빛나게 실현될 것이다

흰눈 덮인 조국강산에 경사로
은 광명성절이 왔다.

광명성절은 우리 겨레에게 있
어서 영원한 태양복을 누려가
는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영광
을 가슴뿌듯이 절감하게 하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이다. 우
리 조국의 강대성과 찬란한 미
래도 광명성절과 하나로 잇닿
아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
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
복,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자신
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영광스러운 삶의 년대
기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독창
적인 선군정치와 불면불휴의 정
력적인 정도로 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걸출한
령도자이시었다.

겨레의 운명은 탁월한 위인을
모실 때 비로소 지켜지고 꽃피
난다.

한세기전 나라를 빼앗기고
피눈물을 뿌리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세계여 조선을 보라!
희세의 선군태양을 모시여 우리
는 존엄에 살고 공지에 살고 승리
에 산다.》고 긍지높이 웨치고있
다. 이 자랑찬 현실은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존함과
매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70년전 항일대전의 총포성
울리는 백두밀립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시다.

장군님께서 김일성주석의 선
군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하
시어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
의 군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기울
여오시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전 그이께서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경
수제105방크사단에 새기신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중
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
이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
하여 그이께서 한몸을 내대고
헤치신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에
는 솟구치는 파도를 맞받아 헤
쳐야 했던 풍랑사나운 바다길도
있었고 미끄러져내리는 야전차
바퀴에 어깨를 들이치고 한치
한치 룴아올라야 했던 최전연고
지의 칼벼랑길도 있었다. 금시
적의 총구가 불을 토할것만 같
은 위험천만한 판문점초소길도
있었다.

잊을수 없는 그 나날들을 더
듬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나느 고난의 행군의 전기
간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
신 인민, 수령님께서 맡기고가신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 우
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겠다는 사생결
단의 의지만을 안고 살았다고 말
씀하시었다.

수령님 맡기고가신 조국을 위
하여!

실사 가는 알길에 지피밭이 있
다 해도, 불바다가 있다 해도 사
생결단의 의지로 헤쳐오신 그이
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있어 한
세기전 총대가 약해 망국의 운
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강국의 위용을 떨치고 반
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
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질수 있
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
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장군님의 무한한 애국헌신성은
그이의 령도풍모에서 핵을 이
룬다.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
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장군님께서 한생을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수 놓아 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성상 위임없이
진행하신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
은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그이
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의 최
고정화이다. 쪽잡과 제기밥, 야



전복과 야전차, 삼복철강행군과
눈보라강행군.

눈물없는 들을수 없는 그 성
스러운 행로에서 세상을 놀래우
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
로 펼쳐지고 인민의 세기적인 념
원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꽃
피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
기지 않으시고 오로지 조국과 인
민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태워오시다가 현지지도의 길에서
위대한 심장의 고통을 멈추신
아버이장군님이시었다. 동서고
급 그 어느 나라에도 인민을 위
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오시다가 달리는 야전렬
차에서 순직하신 이런 령도자,
이런 애국자는 없었다.

정녕 자나깨나 오로지 인민만
을 생각하시며 생의 마지막순간
까지도 찬바람 물아치는 현지지도
의 길에 계신 아버지장군님의
한생이야말로 후손만대가 길이
전해갈 애국, 애민, 애족의 한평
생, 눈보라한생이었다.

강성번영의 대문을 지척에서
바라보고있는 오늘 우리 겨레는
류레없는 시련과 역경속에서 조
국을 지켜주시고 강성번영의 만
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장군님의
업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
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그이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
신 행복의 만년터전에서 겨레는
영원히 찬만복을 누리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불라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령도력
과 숭고한 덕망으로 나라의 통일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
신 민족의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성인이시었다.

일찍부터 민족분열의 아픔을 두
고 잠 못 이루시는 아버지수령님
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자신
의 최대의 본분으로 삼으시고 그
길에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자신께서는 어린시절 38° 선이
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분
렬의 장벽을 일시적인것으로 생
각하였지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
야 살고 물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힘주어 말
씀하신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
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
주적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
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있
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새벽에 일
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
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
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
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
고 간곡히 말씀하곤 하시었다.

내놓으시기도 하시었다.
장군님께서 바로 그렇게 한
평생을 바쳐오시었다. 위대한 애
국헌신의 열기로 온몸을 불태우
시며 통일을 위한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시었다.

그이께서 매 시기, 매 단계마
다 내놓으신 과학적이며 공명정
대한 조국통일사상과 방침들, 지
칠줄 모르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
도는 내외반통일분자들의 방해책
동을 물리치고 통일운동이 승리
적으로 전진할수 있게 한 원동
력이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
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
이 밀려들던 1990년대중엽 한몸
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최전방인
판문점에 나가시어 아버지수령님
의 친필비상에서 오래도록 걸음
을 멈추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침착한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
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 오
늘도 겨레의 심장 새차게 두드

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성사시키시
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
는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신
것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
둬하던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
의 바른 궤도에 올려세우고 6.
15자주통일시대를 열어놓은 획기
적인 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
애와 하늘같은 덕망은 민족대단
합의 새 전기를 펼쳐놓았다. 선
군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앞을
다투어 평양을 찾아오는 남녘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을 친히 만
나 애국애족의 넋을 심어주시며
민족대단결의 대오에 세워주시던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겨레
의 가슴속에 영원토록 안겨살 민
족의 태양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은 겨레를 품어안는 광복의 도량
과 인덕으로 나라와 민족을 귀중
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
구든 한몸에 안아 애국의 대오
에 세워주시는 그이의 넓은 품속

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
일에국의 한길에서 새 삶을 누
리었던가.

얼화같은 조국애, 민족애로 심
장을 활활 불태우시며 겨레의 통
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민
족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열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무
궁번영할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신심과 활
력에 넘쳐 새로운 주제100년대를
향한 장엄한 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다.

오늘의 대진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조
국을 통일강성국가로 빛내이며
김일성민족의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대진군이다.

아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
과 리상은 강성국가건설이었고
조국의 통일이였다. 온 겨레는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
룩한 한생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그이의 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워
야 한다.

그러자면 위대한 김정일장군
님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민족의 아버지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
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강성
부흥과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이
있다.

은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은 영
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
직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꽃피우
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
야 한다.

그이께서 겨레에게 남기신 조
국통일유훈은 통일을 위한 귀중
한 라침판이고 은 겨레를 통일에
국투쟁으로 불러일으켜주는 정신
적량식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
라의 통일과 민족대단합을 위하
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굳
건히 고수하고 그이의 조국통일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
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
일대강으로 높이 들고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조국통일3대원칙발
표 40쪽, 10.4선언발표 5쪽이 되
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치밑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
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
려야 한다.

선군 조국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사상과 령
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장군님 그대로
이신 민족자주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고 탁월한 령도자이
시다. 그이는 곧 우리 조국이고
민족의 창창한 래일이시다.
새해의 첫걸음을 사연많은 땅크
부대에여 떼시고 인민군부대들을
런이어서 시찰하시는데 그의 모습
에서 겨레는 선군의 길, 초강도
강행군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던
장군님의 모습을 비추고 승리의
심장과 락관, 절세의 위인을 모
신 한없는 민족적공지감에 가슴
부풀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가
시는 길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
국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은 겨레는 경애 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애국의 한마음으
로 더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통일강국건설의 만년
토대가 있고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
라에서 행복을 누려가려는 겨레
의 세기적꿈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되게 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천출명장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전설적인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반미대전의 불구름속에서 성장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총대를 제일 중시하시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계승발전시키시어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창조하시고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군사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훌륭한 군대로 키우시고 전면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시어 우리 나라를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치렬한 정치군사적대결전 이 벌어지던 가장 준엄한 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령군술로 전군, 전민을 이끄시어 한차례의 대전과 다음없는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최첨단수준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어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 인민의 행복을 대대손손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50여성상을 헤아리는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끊임없는 전선시찰과 현지지도로 언제나 군인대중속에 들어가시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일당백의 용사로 키워주신 병사들의 친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전선의 진두에 서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필승불패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과 혁명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 101(2012)년 2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만수대창작사에 건립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이 만수대창작사에 건립되였다.

수령영생의 진리를 새겨주며 이 땅에 태양의 력사, 그리움의 대화가 끝없이 흐르는 속에 조선로동당과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기마동상을 함께 모신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크나큰 영광이고 자랑이다.

동상들은 천리를 주름잡는 군마를 타시고 장군봉에 오르시어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천하를 움직이시는 천출명장들의 위인상이 빛발치는 기마동상들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떠받들려 솟아난 수령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이다.

절세위인들의 동상이 선군조선의 승리의 상징으로, 혼연일체의 결정체로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주체조선의 100년사와 더불어 불멸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

만수대창작사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제막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제막식은 예극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제막을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만수대창작사 일꾼들이 하였다.

제막코가 벗겨지자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 빛을 뿌리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격정의 꽃물결이 실려였으며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2월의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씌어져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출기차게 전진시키시어 태양민족의 100년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시고 선군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경모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기 위한 장엄한 대고조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광명성절을 맞으며 만수대창작사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을 가지게 된다

고 하신다. 절세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굳은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간직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끝없는 환희와 격정속에 오늘의 경사를 맞이하고 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제막하는 이 시각 우리

모두는 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뜨겁게 되새기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함몰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류례없이 준엄하였던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어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이인위천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

해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대강을 밝혀주시고 온 민족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였으며 세계정치현로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시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정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시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그들의 리상을 꽃피우기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였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몸을 강그리 불태우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 혁명의 전도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이다.

일찍부터 아버지수령님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동상과 기념비건립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시였다고 하면서 연설자는 하지만 끝없이 겸허하시고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동상을 건립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시려던 천만군민의 절절한 념원이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한없이 고결한 총정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게 된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만수대창작사의 일꾼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을 비롯한 전국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민족대국상의 나날에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산악같이 일떠세우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총정을 다 바치였다고 말하였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신 오늘의 력사적인 사변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흥모의 정을 담아 조국의 강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역적 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막식은 《인려나소날》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들을 돌아보았다.

민족의 어베이, 조국통일의 구성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겨레의 은인

조국통일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민족분열로 우리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

불신과 반목, 대결의 긴긴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격동적인 환희와 사변들을 펼친 6.15자주통일시대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씨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감격도 새로운 주제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관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철명비앞에서 오레도록 길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절절하게 울리는 그의 말씀에는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선다고 해도 수령님의 유혼을 끝까지 관철하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운동발전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불후의 고전적작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선언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었다.

주제89(2000)년 6월의 력사적인 평양상봉,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불면불휴의 로고, 애국애족의 대응단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을 방문한 남측대통령일행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그들이 체류하는 전 기간 친리혜안의 예지와 넓은 포용력, 숭고한 도덕과 해박한 식견으로 그들과 여러차례 격적있는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히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측성원

들과 진행하신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마침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제89(2000)년 6월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을 계기로 《김정일총서》, 《김정일일품》이 온 강토에 굵아졌다. 평양에 왔던 남측성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호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분》, 《니그러우면서도 쾌활하신분》, 《통이 크고 호방하며 모든것에 환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뛰어나신분》,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시는 초능력을 소유하신분》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 겨레가 6.15의 가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거족적통일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6.15공동선언리행에 유리한 평화환경을 마련해주시고 공동선언리행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었다.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로 공화국의 대규모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시어 온 남녘땅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해주신분도 장군님이시었고 온 나라일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을 찾으신

조선의 각계층 인사들도 친히 만나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분도 장군님이시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애국애족의 조치에 의해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과 남사이의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민족통일대추진을 비롯한 민족의 대화합찬들이 성대히 치르어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촉진되고 겨레의 자주통일의지가 내외에 힘있게 과시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북과 남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협력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극적인 사변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로 동자, 농민, 청년학생, 경제인,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각계층의 온 겨레가 북과 남을 오가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향해가는 랑만과 회열을 느꼈으며 통일조국의 래일도 그려보았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탁월한 령도로 인해 주제96(2007)년 10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또다시 마련

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도 채택발표되었다.

진정 애국애족의 대응단과 통일의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 시대의 대과를 완수하시어 민족의 불멸할 업적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수많은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각계층은 민족통일대추진을 비롯한 민족의 대화합찬들이 성대히 치르어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촉진되고 겨레의 자주통일의지가 내외에 힘있게 과시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북과 남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협력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극적인 사변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로 동자, 농민, 청년학생, 경제인,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각계층의 온 겨레가 북과 남을 오가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향해가는 랑만과 회열을 느꼈으며 통일조국의 래일도 그려보았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탁월한 령도로 인해 주제96(2007)년 10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또다시 마련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한생은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애국헌신의 한평생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물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며 일찍부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오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을 부정하고 공동성명자체를 뒤집어엎으려는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겨레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셨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두고 언제나 마음씨오신 장군님께서서는 1970년대에 여러차례나 판문점을 찾으며 통일을 기다릴것이지 아니라 앞당겨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진다. 그래서 나는 분계선지구에 나올 때마다 판문점에 들리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었다.

1984년에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큰물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았을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혈육의 정이 담긴 수많은 구호물자들을 수재민들에게 보내주시어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

해 력사의 땅 관문점에 통일철명비도 건립하도록 해주시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분렬의 비극을 갈망할 결연한 의지를 지니시고 위험천만한 최전방중의 전방판문점에까지 나가시어 통일의 피성을 터치신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되새겨져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 겨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통일문제에 심려하시며 잠 못이루신 밤, 통일을 위해 헤쳐가신 험난한 길은 이루 돌아올수 없다. 오직 나라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장군님이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온 나라 근대와 인민이 간절히 계기하는 자신의 동상건립문제도 끝내 만류하시고 통일문제해결에 전심전력해오셨다.

나에게는 지금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다고 하시며 감성대국을 일떠세울 생각밖에 없는데 무엇때문에 바라지도 않는 동상을 세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민들이 동상을 세울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그날의 절절한 말씀.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분렬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겨레에게 통일을 하루빨리 선물로 안겨주시려고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으며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구성이시었다.

본사기자 최광혁

평일에 이 헌정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높이 통일애국의 한길로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윤정호와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처음으로 맞는 2월에 우리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식화해주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민족운명개척의 고귀한 유산으로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윤정호: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서서는 주제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작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선언을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었다. 파란빛과 폭죽 많은 통일운동사에 승리의 기치로 휘날리게 된 조국통일3대원칙, 그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포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레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조건과 통일일을 감당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조국통일3대원칙의 길에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으로, 튼튼한 밑천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수 있게 되었다.

기자: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지난 기간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지 않았는가.

윤정호: 력사적인 6.15공

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로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반세기이상 가로막혔던 분단의 장벽을 뚫고 끊어졌던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6.15통일시대에 펼쳐졌다. 백두산과 금강산,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이 땅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족끼리 어깨걸고 부르는 통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졌고 헤어져 수 십년동안 생사조차 알수 없었던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감격적인 상봉도 하였다.

기자: 조국통일3대원칙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지금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커다란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윤정호: 조국통일3대원칙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통일을 넘나드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받들고 나가야 할 강령

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는 달라질수 없다.

집권초기부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전면부흥해온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과 반통일책들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다. 온 겨레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었음뿐아니라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으로 퍼놓을 부리는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칼을 박은 남조선보수파당에게 철추를 안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 각계층 사이에 연대련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우리 겨레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한평생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불멸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북남공동선언리행으로 자주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통일을 일일천추로 넘나드는 우리 겨레모두가 만들어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재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밝혀주고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대단합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불과 여섯갈래이지만 여기에는 수천수만의 글자라도 대신할수 없는 깊은 뜻과 내용이 담겨져있다. 우리 민족끼리에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해나가기려는 만만한 의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피줄,

하나의 민족으로서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단결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민족이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출로이고 민족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충실할 때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성과적으로 이룩해

나갈수 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평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발전시키는 문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

진시키는 문제 등 10.4선언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폭넓게 반영되어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를 명시한 북남관계발전의 초석이며 조국통일의 강령적기치이다.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으로서의 북남공동선언

북남공동선언리행에 국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번영을 안아오는 길이 있다.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정권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해도 통일을 위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가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내외분렬주의 세력이 6.15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되돌려세워보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애국의 뜻이 자자구구에 넘쳐나는 북남공동선언을 끝까지 리행하기 위하여 결렬히 투쟁함으로써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야 할것이다.

림소영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통일의 태양은 영원히 빛나리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

박철

그리움에 겨워
그리움속에 우리러니
하늘가에 장엄하게 솟은 봉우리
가슴을 짝 채우는
거룩하고 숭엄한 용자여

장시

그 거룩함 그 숭엄함은
이 2월이 부르코
은 겨레가 드리는 광명성절노래
마음속에 들으시며
백두산에 서계시는 장군님모습
인가

소백수가 피워올린 환안개
드르고
만리창공에 빛나는 봉우리
우러러 우러러
우리 장군님 업적으로 성스럽고
그이의 뜻으로 거대한 정일봉
이어

이 조선에 너는 얼마나 높고
겨레의 마음에 얼마나 뜨거우냐
우리 장군님 민족을 안으시고
쌓으신 덕망 배후신 사령으로

충암절벽의 저 눈부심은
그이 생애의 빛날인가
산정에 서오르르는 장쾌한 눈보
라는
민족의 가슴에 높뛰던
그이의 크나큰 심장의 숨결소리
인가

하얗 아픈 눈물로 넘치려만
정일봉이어 부디 가슴에 쏟아
다오
겨레를 위해 통일의 길에서
한평생 우리 장군님 맞으시어
너도 맞던 그 비를 그 눈을

아아한 절벽 어디에 간직했
느냐
이제 남녘의 한 통일투사가
수령님을 뵈오려 집에 온다고
어머님과 함께 그를 기다려
해방의 기슭에서 맞으시던
그 눈

5.1절을 경축하는 시위행진
그 주석단에 서있는 남녘인사
에게
손수 우산을 씌워주신 그이
그날에 온몸을 적시던 불비
네가 소중히 펼쳐든
력사의 갈피 어디에 젖어있느냐

사람의 한생과도 맞먹는 세월
세월이야 그 눈을 녹였지만
우리 마음엔 녹지 않은 눈
세월이야 그 우산 잊었었지만
오늘도 그 우산아래 사는 우리
겨레

마를새 없었어라
이역땅에서 비를 맞는것만도
마음 쓰리는데
조국에 와서까지 비를 맞으면
되겠는가
동포인사에게 우산을 씌워주
시며

비방울에 젖고젖던 그이 옷자락

녹일새 없었어라
이 길이 삼천리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그 모진 눈보라속
신군장정의 길을 걷고걸으시
느라
추위에 얼어들던 그이의 몸

문노니 정일봉이어
북녘의 인민만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시려
했다면
하루하루가 것처럼 힘에 겹고
한해한해가 것처럼 간고했으랴

수령님 계실 땐
수령님대에 통일을!
수령님 우리곁을 떠나시었을 땐
자신의 대에 통일을!
스스로 심장에 명령하시오
사신 그이

정일봉 너는 알지 않느냐
매이르게 귀밀머리 회여지는
분렬의 원한
7천만의 뼈를 깎는 그 아픔을
다 안으신 그이
한몸의 고통 얼마나 컸는지

오늘에 생각하면 가슴저리구나
탄생의 그날 이 나라 백두산이
드린것
한장의 쪽무이포탄이었다면
그 아픔 그 고통을 안고 사신
그이께
우리 겨레가 드린것은 무엇이였
느냐

어름에도 야전복
겨울에도 야전복
철따라 야전복을 야전복으로
갈아입으시며
언손에서 부서지던 꿩기발을
드시며
통일을 불러 통일을 불러
장군님 지새우신 밤과 밤들이어

그밤들에 기울던 삼태성이
오늘도 네 하늘에 즐기고있고
맞으시던 그 새벽노을이
오늘도 네 마루에 어려있거늘
정일봉이어 너 가슴해쳐다오

남녘에서 한 로기업가가
평양에 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
우리가 가서 만나주자고
수백리 현지지도의 먼길에서
되돌아 달려오신 그밤은 언제
시며

자신의 한생을 하나로 쥐
여짜면 인민이라는 두글자가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란다
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 인
민들에게 영광을 안겨주고
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
정이라고 하시며 한평생 인

오로지 재부만을 위해
퍼는 홀릴지언정
눈물은 잊고 뛰어다니던 그가
눈물을 쏟았다, 그이 품에 안겨
오신듯
그리도 두손 따듯이 잡아주시며
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라고
하신
정에 겹고 믿음이 어린 말씀—

그 인덕에
그 경륜에
인생의 천만보화를 안은듯
아아, 가슴속 천길깊이에서
후더운 눈물과 함께 터쳐
올린 말
—고맙습니다, 국방위원장님!—

어찌 그만 눈물로 터쳤으랴
그이를 만나보은 해외동포
너기자
조선웃을 입은 옷차림까지도
다심하게 헤아려주시신 육친의 정
그는 글에 담아 세상에 찬양했
어라

꿈결에도 그리던 그이를 모시고
공연을 한 남녘의 너가수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참말로
섬세하고 자상한분이사라고
자라났습니다
나는 그 어디에라도 가야
합니다
관문점에도 가야 합니다

분렬은 이 땅을 갈라놓았으나
그 품에 이 땅은 하나로 있었고
분렬은 민족을 갈라놓았으나
그 품에 민족은 하나로 안겨있
었으니

슬하의 자식처럼 보듬어보듬어
가슴마다 참살을 꽃겨주신
아, 그이네 겨레의 아버지!
민족이 나갈 길 심장마다 열어
주신
아, 그이네 겨레의 통일태양!

못 잊을 아버지의 그 천만로고
인듯
두팔벌려 안아보는 봉우리
흰눈을 띠고 서있어도
장군님의 열화같은 겨레사랑
으로
불처럼 뜨거운 정일봉이어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 심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 헌신
생애를 다 바쳐서라도
통일을 안아오시려는 철석의
각오
정일봉이어 너는 보았으리라
깊어가는 사령부창가의 사색과
함께

조선지도우에 쏘으시던 예와 정
그 밤 고향집 피창을 밝히시던
등잔
집무실에 야전렬차에 옮겨
오신듯
밤마다 밤마다 타고오던 불빛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
자고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고...

그 불멸의 통일대강
북으로 종이우에만 쓰지 않으
셨다
그이네 애국의 피로
겨레의 가슴에 적으셨고
이땅에 피어린 자욱으로 새기셨다

쏟— 때마침 불어치는 바람에
세찬 눈보라를 터치는 정일봉
이야기마디마디 너도 목메이
느냐
목이 메어도 목이 메어도
이야기에 이야기를 이어나오

—나는 백두산의 아들입니다
백두산에서 태어나
항일혁명의 총성을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나는 그 어디에라도 가야
합니다
관문점에도 가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막아서는 초병들
손에 땀을 쥐고 따라서는
인군들
안타까운 그 마음 알아서인듯
갑자기 하늘땅에 피어오른 안개
장군님의 온몸을 감싼 환안개여

격정을 터치며 안아보고안아
보던
그날의 환안개는
정일봉 네가 천지조화를 부려
관문점에 피운것 아니더냐
피워올려 그이를 옹위할것 아니
더냐

뒷길은 그날 너는 보았지
력사의 그날 너는 들었지
수령님 천필말에 백두산악
같이 서신
천출위인의 모습울
우렁우렁하신 그이의 음성을

—나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후대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겨레여 대답해보라

기나긴 분렬세월 그 언제
이런 장거 보았더냐
통일령장 우리 장군님만이
분렬의 상징 판문점에
통일의 불 지피실수 있는 패거!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북남삼천리에 활화산처럼 분출
하는
겨레의 흠모 겨레의 경애
그 진정을 담아 인군들
그이 동상을 건립하자고 아뢰었
건만

눈물이 솟으나
수령님 것처럼 바라시고 애스
시던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
는데
동상을 세우면 절대로 안된다고
준절하게 불허하신 장군님

정일봉이어 너는 보지 않았느냐
강산을 울린 그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을
겨레의 소원우에 남겨놓으시고
통일의 길 다그쳐가신 그이
모습

우러르고 다시 우러를수록
너는 얼마나 높은가
너는 얼마나 빛나는가
우리 장군님의 은공으로!
7천만 우리 겨레의 공지로!

그날처럼
오, 그날처럼
장쾌한 봉우리를 터치라
천지를 뒤흔드는 저 거센 폭풍
삼천리에 휘뿌려
환희의 열풍 다시 터치라

잊을수 없어라, 우리 장군님
이 산정에서 키우신
애국애족의 의지와 결단으로
장장 55년 그 분렬세월을
단 55시간에 불사르실 때

불살라 불살라
이 땅에 6. 15통일시대 열어
주실 때
파르릉— 우리를 터쳐
분렬장벽을 밀부리쳐 흔들며
통일의 불시위를 부른 정일봉

력사의 그 순간
북남공동선언문에 서명하시고
민족앞에 크나큰 공헌을 하시고
분계선너머 남해의 한끝까지
해빛같은 미소 뿌리시던 장군님

천신만고 헤쳐오신 한평생 때를
리며
두볼을 적시던 눈물이어

수천수만밤만 지새신것 아니라
세월의 눈비만 맞으신것 아니라
생신날 하루의 휴식마저도
가정의 단란한 행복마저도
이 날을 위해 기꺼이 바치셨
거니

6. 15통일시대!
애오라지 겨레를 위해 통일을
위해
강그리 불태워오신
우리 장군님
그 고귀한 한평생과도 같은
오, 우리 민족기리시대!

오늘도 그 6. 15통일시대에
희망을 얹고 삶을 얹고
목숨처럼 안고 사는 동포여
겨레의 고마움은 무엇이더냐
감사중 감사는 또 무엇이더냐

북남삼천리에 진감하며 파도
치던
고마움이어 감격의 물결이어
6. 15통일시대를 열어주신
장군님
후손만대에 빛날 그 공적에
발들려
겨레의 가슴에 더욱 높아진
정일봉

북남삼천리에 들끓으며 굽이
치던
감사여 감동의 대하여
6. 15를 꽃피우려 안겨주신
10. 4선언
장군님 불멸의 그 업적
발들려
민족의 가슴에 더욱 빛나는
정일봉

하기에 여기를 찾아온 동포들
마디마디 진정을 토로했어라
정일봉의 이 기술
고향집의 이 유서깊은 트락이
바로 통일조국삼천리라고

태양과 더불어 빛을 뿌리는
《정일봉》
백두산이 높이 받든 저 글밭은
은 겨레가 안겨살 조국통일
그 큰집의 자랑스런 문래이라고

수십년전 우리 장군님
고향집을 나서 이 기슭을 떠나
실 때
가슴속에 안고 가신것은
투사들이 만들어준 권총과
사랑으로 쓸어보시던 작은 조선
지도

보라, 오늘은 그 조선지도우에
장군님의 그 공적 그 업적으로
일떠설 통일조국을 안고
그리운 그리울 뵈오려 오듯
남녘과 해외동포들
밀림속 길이 메이도록 찾아와라

정녕 우리 장군님은
겨레를 위해 이 땅에 나시었고
통일을 위해 이 조국에 사시
었고
겨레와 통일을 위해 이 조선에
위대한 심장 다 주시었거니

그 이름도 뜻높은 정일봉
정일봉
장군님의 품을 하늘로 펼치고
장군님의 사랑을 강도로 펼쳐
삼천리 우리 조국을 이룬
절세위인의 봉— 민족의 제일봉
이어

이 조선에 거룩하고
누리에 숭엄한 그 용자
오, 정일봉 정일봉은
통일의 붉은 노을 지퍼가는
백두산에
오늘도 거연히 서계시는
민족의 아버지 김정일장군의
모습!

그 모습과 꼭 같으신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백두산혈통의
천출위인
김정은장군
정일봉은 민족의 진두에 받들었
나니

우러러 보라
그리워 그리움에 젖은 이 노래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시
지 못한
겨레의 눈물겨운 이 노래
피땀은 가슴으로 들으시며
통일의 길 힘차게 이어가시는
그 모습

그이네 백두산위인들의 통일
유산
조국통일3대헌장, 6. 15기치로
이 땅의 통일을 이룩하시리
은 겨레의 경모 대들로 놓으
시고
삼천리에 장군님동상 높이 모시리

천년만년 길이길이 떨치라
경애하는 김정은장군
그이 탁월한 평도의 손길따라
2월의 기상 2월의 위업
정일봉이어 무궁도록 떨치라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장군
이끄시어
조선은 통일강국으로 일떠선다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의 아버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 여기 백두산마루에 솟아
있어도
오, 정일봉은 삼천리에 빛나
도다!

과 바다, 려토를 지키는 비
행사, 해병, 대원함부대군인
들을 찾아 쉬임없는 현지시
찰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선
군령도의 날과 날들은 조국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이번에 그 현지시찰보도에
서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
는 적대세력은 공포와 전율
을 금치 못하고있다.
을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말
았다. 미국과 남조선군이 야
합하여 벌려려 하는 모험적
인 《키 리졸브》, 《독수
기》 합동군사연습도 시작되
기 전부터 서리맞은 딱잎신
새가 되고있다.

참으로 신념과 의지, 무비
의 담력과 배짱, 숭고한 인
덕과 품모에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모시여
장군님의 선군승리의 력사
는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
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
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해나감으
로써 선군의 길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자말것
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
해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이 이 땅에 흘러넘치고
있다.

그 사랑은 바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
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
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천품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한

생은 인민에 대한 전설같은
사랑과 끝없는 헌신으로 수
놓아져있다.
자신의 한생을 하나로 쥐
여짜면 인민이라는 두글자가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란다
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 인
민들에게 영광을 안겨주고
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
정이라고 하시며 한평생 인

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짱그리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대소환의 추
위와 삼복칠의 무더위도, 높
고 험한 려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었고 명절날과 일요
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야전차와 야전렬차를 집무
실로 삼으시고 현지지도로
한해를 보내시며 인민들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조국인민
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사
랑의 력사는 인민에 대
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지니신 또 한분의 위인이
신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
해 변함없이 이 땅우에 흐

르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사상
도 려도도 품모도 장군님 그
대로이시다. 그이께서 인민
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해야 한다시며 민족의 아버지
를 잃은 슬픔속에 몸부림치
는 이 나라 인민들에게 베풀
어주시는 눈물겨운 사랑의 이
야기들은 지금도 전설처럼
사람들속에 전해지고있다.
주의식장을 찾는 인민들이
추위할새라 유유와 사랑가록
를 탄 더운물을 봉사하도록
하고 수만개의 발열볼입퍼
를 보내주시며 야외가설물과
의료봉사대도 설치하도록 해
주시 친어머니의 그 다심한
사랑, 장군님의 사랑이 그대
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
닿아야 한다고 하시며 온정
어린 물고기들을 애도기간에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시 감동깊은 이야기...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
면 칩실의 온도도 몸소 손으
로 가능해보시고 식당에 들리
시어서는 병사들에게 더 훌룡
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이는 인
민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었던 김정일장군님 그
대로이시다.

선군의 한길을 따라

위 대 한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한평생이
어려있는 선군에
국위업은 오늘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 애 하 는
김정은최고령도자
에 의해 변함없
이 계승발전되고
있다.

은 세계가 민족
의 대국상을 당
한 조선이 새해
에 어느 길로 나
아갈것인가를 예
의주시하던 때에
김정은최고령도자
께서는 조선인민
군 군위 서울류경
수제105땅크사단
에 기록한 려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
였다.

105땅크사단
으로 말 하면
아버지장군님께서
추위할새라 유유와 사랑가록
를 탄 더운물을 봉사하도록
하고 수만개의 발열볼입퍼
를 보내주시며 야외가설물과
의료봉사대도 설치하도록 해
주시 친어머니의 그 다심한
사랑, 장군님의 사랑이 그대
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
닿아야 한다고 하시며 온정
어린 물고기들을 애도기간에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시 감동깊은 이야기...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
면 칩실의 온도도 몸소 손으
로 가능해보시고 식당에 들리
시어서는 병사들에게 더 훌룡
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이는 인
민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었던 김정일장군님 그
대로이시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
으로 간직하신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사
는것이야말로 우리 민족만
이 받아안은 남다른 특전이
고 행운이 아닐수 없다.
방영민



중 산 군 석 다 산 의 전 연 바 위 에 새 긴 글 밭

민족 최대의 명절 - 광명성절을 맞으며

☆☆☆☆

☆☆☆☆

제 16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진행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제16차 김정일화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김일성화김정일화축전 시판에는 《제16차 김정일화축전》, 《광명성절기념》이라는 글발과 축전기발들이 계양되어 있었다.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에는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져 있었다.

전설적위인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흠모하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지성에 떠받들려 만발한 3만여상의 위인칭송의 꽃이 축전장에 전시되어 있었다.

태양의 꽃들에는 인민무력부, 내각사무국, 국가과학원, 경공업성, 외무성, 료해운성, 대성지도국,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인민군 부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와 인민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충정의 마음이 어려 있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주조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단체들과 인사들, 화교들도 불멸의 꽃들을 축전장에 내놓았다. 개막식이 14일에 진행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



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개막사를 김창도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펼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제16차 김정일화축전을 개막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올해를 강성변영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기》의 주악으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시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결의대회가 12일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대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조선인민군 차수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불세출의 선군태양을 맞이한 민족의 대경사, 대행운이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준 세계사적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대우에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군력강화에 불멸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었다.

반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고귀한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어버이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장군님의 유혼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는 위대한 선군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에서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청년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차넘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최고사령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될것이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가려는 결의로 가슴불태웠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백두광명성탄생을 만방에 알리던 그날의 환호성이런 듯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의 하늘가에 축포가 터져올랐다.

천변만화의 꽃보라, 불보라가 천고의 밀림에 황홀한 불야경을 펼쳐며 터져오르는 속에 백설을 띠고 승업히 솟은 정일봉의 용자가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었다.

밤하늘을 밝히며 련이어 터져오르는 축포를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함성을 울리었다.

본사기자



축전장을 돌아보는 해외동포들

조국의 밝은 태양을 보았다

오늘 성황리에 개막된 제16차 김정일화축전을 본 소감은 이루 다 말할수 없다. 수만상을 헤아리는 불꽃불은 호참하게 만발한 평화마다에 절세위인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이 그대로 스며들어있는듯싶었다. 일세 하나도, 줄기 하나도 무시할수 없었다.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처럼 큰 업적을 남기신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고 그분의 출중한 품모를 잊지 못해하는 만사람의 경모의 정이 축전장에 짙 차있는것 같았다.

세상에 원예박람회나 화초전시회와 같은 각이한 규모나 형식의 꽃모임은 많아도 이런 위인칭송의 꽃축전은 아직 그 어디에도 없는줄로 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의 열정적 애의 때아닌 계절에도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장식하고있다고 본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보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살아왔는가 하는것을 더욱 가슴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번에 조국에 와서 절세위인의 유혼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동포들의 모습을 보니 힘과 용기가 솟고 강성국의 래일이 보이는것만 같다.

기념 우표들 발행

기념 우표들 발행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1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들의 윗부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기념》, 《2.16》이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다.

소형전지에는 백두밀림에서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회세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서계시는 영상이 모셔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자!》 등의 글발들이 있는 묶음전지

에는 한평생 병사들과 인민들 속에 계시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우표와 미술작품들이 있다.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를 형상한 개별우표도 창작되었다.

기념 우표들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아픔을 안고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우리 세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장군님의 유혼을 결사관철해나갈 혁명적 열의를 더해주고 있다.

광명성절기념 열음조각축전이 12일부러 삼지연군에서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 사단 돌격대원들과 삼지연군 근로자들이 만든 1000여점의 열음조각이 백두산밀영지구와 삼지연읍지구에서 전시되었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적관계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조각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생동하게 형상한 열음조각을 바라보면서 가슴깊이 새겨두고있다.

얼음 조각 축전 진행

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두자루의 천총, 최고사령관기의 원수벌과 백두산호랑이 열음조각도 있다.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개신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과 비날론폭포, 주체철, 회천발전소 통린언체 등을 생동하게 형상한 열음조각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자를 형상한 열음조각을 비롯하여 삼지연읍지구 축전장의 열음조각들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야전복차림으로 인민을 위한 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특색있게 만든 다리들과 동식물들, 산천어들이 꼬리치며 다니는 어항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2월 16일의 찬겨중회

공화국의 기상수문국과 평양천문대에서 분석한데 의하면 주체31(1942)년 2월 당시의 백두산밀영지구 기상상태와 천문현상이 신비하게 나타났다는것이 확증되었다.

백두산밀영지구에서 1942년 1월 하순부터 찬전선과 저기압골이 자주 형성되면서 강우위가 계속되고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쳤다. 2월 1일 백두산밀영 일대의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30℃이하의 강추위가 계속되었다.

추위와 함께 바람은 10~15%의 속도로 세차게 불면서 태고의 밀림에 눈보라를 몰아왔다. 15일 백두산에서는 40~50%의 거세찬 바람이 불고 천지에 두렵게 일어붙은 얼음층이 갈라터지며 천둥이 우는듯 한 요란한 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며 온 하루동안 지속되었다.

백두산절벽에서는 수천㎡의 눈사태가 내리쳐 천지상공에 장쾌한 소리가 메아리쳐 봄의 태동을 알리었다.

2월 15일 밤부터 백두산밀영지구에는 바람이 잦으면서 최고의 밀림속에 승업한 정적이 깃들었다. 그리고 맑은 날씨가 펼쳐지고 밤하늘에는 별무리가 반짝이었다.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지구와 우주에서 16일 밤부터 찬전선의 자연현상이 일어났다.

새날의 려명이 밝아오는 16일 새벽 5시 56분 신비하게 백두산밀영의 동쪽하늘 방위각 76°에서 금성이 나타났다.

《세벌》로 불리워지는 금성은 1시간 44분동안이나 눈부신 광채를 뿌리며 조종의 산 백두산상공을 지나 서쪽으로 서서히 움직이였으며 이때 그 밝기는 천문학적으로 매우 밝은 등급을 기록하였다.

뜻깊은 1942년 2월 16일 7시 29분 백두산에서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아득히 펼쳐진 조국강산이 어둠에서 깨어나고 정일봉과 백두산밀영고향집은 감색, 붉은색,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백설에 눈부신 아침햇빛은 유난히도 밝고 하늘은 맑게 개어있었다.

아침기온은 -29℃였으나 한낮에는 최고 -18℃로서 이 지대의 겨울기온치고는 온화하고 따듯한 날씨였다.

이날 이 일대의 해비침시간은 10시간 45분으로서 최다의 기록을 나타냈다. 또한 오전 10시 52분부터 평균 1시간 간격으로 나타난 화성과 목성, 토성이 어둠이 깃들자 백두의 하늘중천에 떠올라 밝은 빛을 뿌리었다.

이 신비스러운 자연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조국해방전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파급된 향토성에 대한 전설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은 말 그대로 하늘이 낸 날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